

# 낙농가의 소리

경향 각지에서 오신 많은 분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동안 뜻을 같이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농가들의 어려움과 울분을 백의 하나라도 본인이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어 두렵다.

이웃의 영농후계자는 낙농진흥시책으로 후계자자금을 받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논밭을 팔고 농협과 축협에서 빚을 내고 낙농기구상과 유업체를 뛰어들면서 빚을 내어 축사를 짓고 젓소를 사고 기자재를 사들였다. 작년 이맘 때쯤 젓소 10마리는 3천만원 정도의 재산이었으므로 소를 팔면 2천만원의 빚도 갚을 수 있고 해서 부지런히 소 10마리만 기르면 잘살수 있다는 희망으로 노력해 왔었다. 얼마전에 농협·축협에서 빚을 갚으라는 독촉이 왔고 사채도 갚으라는 독촉이 있어 소를 팔려고 하니 송아지는 매기가 없어 큰소 10마리를 소장수에게 물어보니 1천7백만원 정도로 사갈 뜻을 비쳤다고 한다. 1년간에는 빚을 갚고도 1천만 정도가 남아 가능성을 보였는데 이제는 남은 것은 고사하고 빚도 다 못갚을 지경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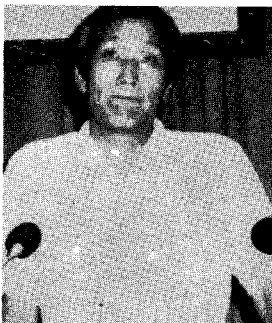
이런 참혹한 현실은 영농후계자 뿐만 아니라 우리 낙농가 전체의 소리로 생각한다.

얼마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수급조절용으로 수입된 분유가 부득이 가축사료용으로 전용되었다는 보도와 함께 그 다음날의 사설에는 사람이 먹을 완전식품이 정책당국의 실수로 인해 가축을 먹이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반문을 실고 있었다.

또 다른 신문에 따르면 금년 1/4분기 동안 수입한 유제품이 6천6백톤인데 그중 절반가량은 국내 분유로 대체될 수 있다는 보도였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낙농의 불황은 더욱더 깊은 늪으로 침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농가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낙농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답답하기만 하다.

약 3개월 전 소 사육농가의 자살사건을 기억할



강 춘 성

낙농인 / 경남 사천군 곤양면  
성내리155, 들얼농장

**· 다른 공산품은 다 수입하는데 유제품만 수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 혹은 비교우위를 앞세워 수입을 거론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것이다. 우리처럼 평범했던 그 농민도 소를 기르면 부자될 수 있다는 당국의 말을 믿고 논을 팔아 소를 사서 길렀으나 1년 후에 팔아서는 논값은 고사하고 빚도 제대로 못갚을 형편이어서 비참한 현실을 더 못견뎌 자살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농민의 죽음이나 나의 죽음이자 곧 소를 사육농가 전체의 죽음이라는 생각에 무척 슬퍼질 따름이다.

이러한 결과가 누구의 잘못으로 비롯되었는가?

우리 농민의 잘못으로 빚어졌다면 백번 죽는다고 해도 달게 받겠으나 정책당국의 잘못으로 기인되었다면 반드시 새로운 방향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과오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타개책이 중요한만큼 안정된 생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따라서 차후에는 일체의 유제품 수입을 억제해야 한다. 부득이 수입해야 된다면 몰라도 다른 공산품은 다 수입하는데 유제품만 수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 혹은 비교우위를 앞세워 수입을 거론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마치 헤비급 체격 소유자와 국민학생을 링에 올려놓고 권투시합을 관전하는 그런 연출을 다시는 재론해서는 안된다. 유치산업단계인 우리의 낙농업을 성장·보호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발달된 기술수준과 생산여건을 갖추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생산하는 EEC제국의 우유와 우리의 그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우스개 소리는 될지언정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비교는 못될 것이다.

따라서 유제품 수입만 강력히 억제된다면 남은 문제는 쉽게 풀릴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우유 소비촉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금년말까지 우리나라 우유 총생산량을 대략 백만톤 정도로 보고 이중 재고량을 약 십만톤 정도로 추산한다. 재고량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3백30억이다. 우리 농민이 생각하

기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러나 신문에 보도되는 구제금융이나 장모 여인이 주무른 돈에 비하면 적은 액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투자금액으로 농촌에서 영양실조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광산촌의 어린이들에게, 산간·도서벽지의 어린이들에게, 국군 병사들에게 우유를 공급한다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세번째로는 소 가격유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의 소값 파동원인은 한우의 절대두수가 너무 많은데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우리나라의 적정 사육두수는 2백2십만두 정도인데 3백만두를 이미 넘어섰으니 한우의 절대두수를 감축해야 할 것이다. 흔히 정부에서는 방매를 하지말고 기다리라고 하지만 기다린다고 해서 소 두수가 줄어들지 않는 바에야 가임치녀우를 우선적으로 많이 도살시키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네번째로, 산지 소값은 땅에 떨어져 아우성인데도 정육점 소매가격은 그대로 싼값에 거래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축협이나 농개공 등에서 쇠고기를 다량으로 매입하여 생산원가로 공무원을 비롯한 봉급자와 소비자들에게 장기적으로 판매를 한다면 소 숫자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 없고서는 절대두수의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 낙농가들의 단결된 힘만이 낙농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고속도로 거리로 가장 먼 곳, 진주에서 많은 농가들이 세미나장에 달려왔다. 배우기 위하거나 알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좀더 잘살기 위해, 이 어려움을 좀더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단결된 방법을 찾고자 불원천리를 달려온 것이다. 우리 낙농가 모두가 하나로 뽕뽕 뭉쳐 나아감으로써 농가가 살고 협회가 살 수 있도록 단합하자.